

盧대통령-전국 대학총장 토론회

# 盧 “개천서도 때때로 龍 나와야”

## 균등할당제 도입 “찬성” “신중” 엇갈려 서울대총장 “올 입시안 기존 방침 유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대학총장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입 학생부 전형방법과 교육부가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대학 재정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장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 보고회를 겸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4년제 대학 124곳, 전문대 10곳, 산업대 11곳, 교대 7곳 등 모두 152개교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가 보고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교육균등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경우 이미 지역균형선발 등으로 소외계층 등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격이 정시모집 합격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 제도를 급격히 실시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도덕적 가치”를 키워드로 내세워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대학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저소득층 대상 대입 특별전형 쿼터를 2009년 11%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회균등할당제’를 도덕적 가치의 실례로 들면서 “이 사업이 국가 경쟁력에서도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개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개천에서 골목대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오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충분히 섬세하게 이것들을 설계해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학생부 반영방

법, 대학 재정지원 확충 등과 관련한 총장들의 제안도 잇따랐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몇몇 대학 입학처장들이 사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마치 전체 대학의 입장인 양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사립대의 학생부 무력화 시도가 대학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입시안은 지난 4월 이미 확정 발표했다”며 올해 입시안 유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장은 또 ‘서울대가 자존심을 세우면 상응하는 조치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돌발적으로 나온 내용”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최근 교육 당국과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입 내신반영비율 확대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150여개 대학 총장들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기아차 협력업체 200여명이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정치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자, 기아차 조합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남주기자 mjna@

## 퇴임자·협력업체도 “기아차 파업 철회를”

기아차 조합협의회, 생산관리자협의회 3천여명에 이어 정년퇴임자들과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 급속노조 ‘정치파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 주변에 ‘기아차광주공장 정년퇴임예정자’ 명의로 ‘파업 반대’를 촉구하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정년퇴임예정자 일동은 ‘후배님들에게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유인물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아차는 영입직자에 일부 차종은 판매부진으로 라인에 중단되고 있다”며 “고객이 등을 돌리는 기업은 살 수 없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파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아차 협력업체 19개사 직원 320명은 26일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한달 꼬박 일해도 기아차 직원들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파업 철회로 협력사들의 부도를 막아달라”며 파업 자체를 호소했다.

기아차 노조는 2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8, 29일 10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지지를 위해 권역별 부분파업을 받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도부 23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발부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 노조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F1 특별법 처리 난항 거듭

### 위원장 자리 다툼 심의 못해...6월 국회 통과 어려울 듯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26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공전,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소위 공전사태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자격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범여권 의원들간의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26일 국회 문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짓지 못했다. 한나라당 문공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문제로 지난 21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데 이어 26일에는 범여권 소속 법안심사위원들의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따라 범여권 문공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한나라당 위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문공위원들의 실력행사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영남·장흥)이 F1 특별법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이에 따라 F1특별법 문제는 27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나 당사 위원장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F1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넘기는 방법과 조배숙 문공위원장이 직권으로 F1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의 상정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27일 한나라당과 범여권 의원 간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공위 관계자는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가를 위해서는 27일까지는 법안심사가 마무리되고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27일 문공위에서 F1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6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BIE 회원국 증가...여수에 유리할까

### 박람회 후보지 결정 11월까지 5~6개국 추가 가입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소속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여수 박람회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BIE 회원국이 98개국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회원국은 가입과 동시에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권을 갖게 된다”며 “회원국이 얼마나 늘어날

지, 그리고 회원국이 늘어나면 여수 개최에 유리한 지 또는 불리한 지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BIE는 회원국이 증가하면 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위상도 대폭 높아져, 회원국 추가 가입을 받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98개였던 BIE회원국 수는 지난 5월 18일 에쿠아도르가, 그리고 지난 6월4일엔 파키스탄이 각각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100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 후

보국인 우리나라와 모로코, 폴란드는 97개 회원국은 물론 현재까지 BIE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람회 후보지를 결정하는 오는 11월까지 회원국이 5~6개국 가량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원국 증가에 따른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규 회원국이 구체화되는 대로 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00개 BIE 회원국을 대륙별로 보

면 유럽이 36개국으로 가장 많고 중남미 26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아시아 13개국, 중동 8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이다.

이 가운데 지중해 연안 5개국은 모로코를,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3개국은 폴란드를 공개 지지하고 있고 여수는 아시아 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우리나라가 3대 국제행사(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게임)를 ‘쌍승이’ 했다고 견제해줄 수가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더라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정부와 대기업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단위:원)

내장일기준	할인금액	비고
5일전부터	1만원 할인	홈페이지 예약 잔여타입에 한함
3일전부터	2만원 할인	
1일전부터	3만원 할인	

● 홈페이지: <http://www.hpdynasty.co.kr>